

산업안전보건본부장,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 재차 당부

- 지난 8.18.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이어 건설사 대표이사와 사망사고 감축방안 논의

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.1.(금) 15:00 서울 중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시공능력순위 11~30위로 대형 건설사* 대표이사 등과 함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.

* HDC현대산업개발, 디엘건설, 대방건설,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15개사(불임)

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,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증가*하고 있어, 지난 8.18. 진행한 ‘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’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에게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* 연도별(~8.24.)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(재해조사 대상<잠정>, 명):

〈전체〉 ('21) 226 → ('22) 216 → ('23) 205, 〈50억 이상〉 ('21) 71 → ('22) 76 → ('23) 83

간담회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없었던 아이에스동서, 우미건설, 반도 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(별첨),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.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형 건설사의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”이라며, 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‘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’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아울러, “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노력이 실제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, 효과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”라고 당부했다.

붙임: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요

별첨: 1. 아이에스동서 발표 자료

2. 우미건설 발표 자료

3. 반도건설 발표 자료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	책임자	사무관	유종호 (044-202-8936)
		담당자	주무관	강혜림 (044-202-8937)



- (일 시) '23. 9.1.(금) 15:00~16:20
- (장 소)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대회의실
(서울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9층)
- (참 석) 15개 건설사* 대표이사(CEO),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, 건설안전실장 등

* ①현대산업개발(11위), ②디엘건설(13위), ③대방건설(14위), ④제일건설(17위),
⑤코오롱글로벌(19위), ⑥금호건설(21위), ⑦동부건설(22위), ⑧아이에스동서(23위),
⑨케이씨씨건설(24위), ⑩우미건설(25위), ⑪반도건설(26위), ⑫한신공영(27위),
⑬쌍용건설(28위), ⑭호반산업(29위), ⑮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(30위)
<'23년 시공능력 순위順>

□ 주요 논의내용

-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및 건설산재예방 정책방향(고용노동부),
건설업 안전관리 사례 발표(3개사), 사망사고 감축 방안 토론(전원)

시간	주요 내용	비 고
15:00~15:05 (05)	■ 기념촬영 및 참석자 소개	
15:05~15:10 (05)	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인사 말씀	· 본부장
15:10~15:25 (15)	■ 안전관리 사례 발표	· 아이에스동서 · 우미건설 · 반도건설
15:25~15:35 (10)	■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및 건설산재예방 주요 정책방향	· 담당 사무관
15:35~16:20 (45)	■ 토론 ■ 토론 종료 후 마무리 말씀	· 주재 : 본부장 · 참석자 전원

※ 안전관리 사례 발표까지 공개